2023학년도 수능 국어 대비

고난도 비문학 끝장내기

15개의 고난도 비문학 기출 완전정복

유성국어

DAY 3

점유와 소유

Step 1. 실전력 강화 훈련

걸린 시간: 분 초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Q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Q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Q3.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Q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Step 2. 독해력 강화 훈련

모든 문장은 천천히 끊어 읽는다.
비문학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꼼꼼한 끊어 읽기'야. 아무리 비문학을 잘 하는 사람이더라도 글을 대충 읽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어. 절대 대충 읽지 말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씩 끊어가면서 독해해보자.

(1)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키워딩_*

쓰이지 않은 정보까지 추론해본다.
어떤 물건을 사용한다고 다 그 물건의 주인은 아닐 거야. 빌려 쓰는 사람도 사용자이긴 하지만 주인은 아니잖아.

용어/사상은 확실하게 기억하여 활용한다.
첫 부분에 제시되는 용어/사상은 글의 흐름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어. 점유와 소유에 동그라미를 치고 끌고 가보자.

(2)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키워딩_*

이해가지 않는 문장은 다시 한번 잘게 끊어 읽는다.
아마 점유와 소유의 개념 구분이 잘 안됐을 거야. 그렇다고 무작정 넘어가면 안 돼. 최소 1번은 찬찬히 문장을 다시 음미하면서 개념을 파악해보자. 개념 구분에 완벽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작업을 통해. 둘이 다른 개념이란 것 자체는 완벽하게 숙지가 될 거야.

(3)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키워딩_*

(4)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키워딩_*

최대한 당연함을 느껴가며 읽는다.
반의어를 생각하며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구분해보자.

(5)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키워딩_*

최대한 당연함을 느껴가며 읽는다.
당연히 둘 다 '점유'라는 글자가 붙었으니 둘 다 점유겠지.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6)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키워딩_*

#1. 윗문장을 읽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7)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키워딩_*

(8)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키워딩_*

이해가지 않는 문장은 다시 한번 잘게 끊어 읽는다.
기억이 힘든 정보는 표시/메모한다.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는 말은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어.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다고 정보를 아예 버리면 안 돼. 최소 1번 다시 읽으면서 이해를 시도해본 다음, 안 되면 필자가 결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정보<대부분 동산: 점유 → 소유권 공시>라도 외워서 가져가자.

(9)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키워딩_*

복잡한 정보는 적당히 쉬운 표현으로 요약/정리한다.
요건과 효과의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 정리해보자.

(10)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키워딩_*

#2. 가방의 소유권이 양도되기 위한 조건 2가지를 정리하면?

(11)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키워딩_*

용어/사상은 확실하게 기억하여 활용한다.
간접점유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면 위로 올라가 의미를 재확인해주자.

최대한 당연함을 느껴가며 읽는다.
이제 지문은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해 서술할 거야. 아마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겠지.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반의어를 최대한 생각해보자.

(12)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키워딩_*

(13)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키워딩_*

이해가지 않는 문장은 다시 한번 잘게 끊어 읽는다.
복잡한 정보는 적당히 쉬운 표현으로 요약/정리한다.
점유개정의 의미가 한 번에 와닿지는 않을 거야.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예시에서 정말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는지,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는지 확인해주고, 쉬운 표현으로 점유개정을 정리해보자.

(14)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키워딩_*

(15)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키워딩_*

이해가지 않는 문장은 다시 한번 잘게 끊어 읽는다.
복잡한 정보는 적당히 쉬운 표현으로 요약/정리한다.
역시 반환청구권의 의미가 한 번에 와닿지는 않을 거야.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예시에서 정말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는지,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는지 확인해주고, 쉬운 표현으로 점유개정을 정리해보자.

#3.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단, 최대한 반의 표현을 사용한다.)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16)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키워딩_

궁금증을 바탕으로 이후의 흐름을 예상한다.
필자가 호기심을 유발하는 건, 그것을 핵심 화제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우리도 궁금증을 가져주자. 그래야 핵심 화제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을 거야.

(17)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키워딩_

쓰이지 않은 정보까지 추론해본다.
보조사를 활용하자.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 '는' 안 된다고 하니, 다른 방법인 반환청구권 양도로'는' 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해볼 수 있어.

(18)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키워딩_

(19)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키워딩_

최대한 당연함을 느껴가며 읽는다.
그렇지. 자동차, 항공기, 부동산 같은 것도 선의취득이 되면 사회에 난리가 날 거야. 온갖 사기꾼이 소유자를 행세하면서 소유권 팔고 원래 소유자는 억울하게 소유권을 뺏기게 되니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과 구분해줄 수 있어.

(20)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키워딩_

#4. 윗글에서 밑줄 친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면?

선의취득을 허용하지 않는다.
ㄱ. 억울하게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일을 막는다.
ㄴ.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한다.
ㄷ. 거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Step 3. 논리력 강화 훈련

Q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해설_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해설_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해설_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해설_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해설_

배치되는 선지 중 하나가 답이다.
〈점유 인도 = 소유권 양도 공시 방법〉이라는 점만 알면, ③과 ⑤는 서로 배치되는 선지인 것을 알 수 있어. 당연히 이 둘 중 하나가 답이겠지?

Q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해설_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해설_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해설_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해설_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해설_

빈출 포인트 '요건과 효과'
1, 2번 문제가 모두 〈유효한 계약 + 점유 인도 → 소유권 양도〉라는 정보로 풀려. (특히 법 지문에서) 〈요건 → 효과〉는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임을 알 수 있지?

Q3.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_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선지 보기 전 생각하기
발문을 보고, ㉠ vs ㉡㉢의 구도를 잡는 선지를 빠르게 훑어내야 해. 지문에서 ㉠ vs ㉡㉢의 구도로 서술했으니까.

Q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해설_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_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_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해설_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_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_

선지 앞부분만 읽고 뒷내용 예측하기

선지의 뒷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때는 예측하고 읽는 게 좋아. "갑이 금반지 소유자 아니라면"까지만 읽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적절한 선지가 될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거지.

고난도 비문학 끝장내기

정답과 해설

유성국어

DAY 3. 점유와 소유

(1)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점유 = 사실상의 지배
소유 =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상태

(2)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점유자 ≠ 소유자

(3)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 = 물리적 지배 (⊃ 빌려 쓰기, 보관하기)

(4)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간접점유 = 반환청구권 가짐

(5)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직접점유 + 간접점유 ⊂ 점유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점유와 소유

이름		의미
점유	직접점유	물건을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간접점유	물건을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진 않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
소유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	

(6)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점유 → 소유자 공시

#1. 윗문장을 읽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공시가 뭔데?

(7)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공시 =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것

(8)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대부분의 동산: 점유 → 소유권 공시

(9)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 + 소유권 양도 공시 → 소유권 양도

(10)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대부분의 동산: 점유 인도 → 소유권 양도 공시

#2. 가방의 소유권이 양도되기 위한 조건 2가지를 정리하면?

유효한 양도 계약 + 점유 인도(에 의한 소유권 양도 공시)

(11)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간접점유 인도 → 소유권 양도 공시 (점유개정, 반청권 양도)

(12)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A: 양도인, 직접점유 B: 양수인, 간접점유

(13)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점유개정: 양도인 = 직접점유자, 양수인 = 간접점유자

(14)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C: 양도인, 간접점유
D: 직접점유
E: 양수인

(15)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반환청구권 양도: 양도인의 반환청구권 → 양수인

#3.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단, 최대한 반의 표현을 사용한다.)

점유개정: 직접점유자 = 양도인O

반환청구권 양도: 직접점유자 = 양도인X (제3자O)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소유권 양도

· 조건: 유효한 양도 계약 + 소유권 양도 공시

· 대부분의 동산: 점유 인도 → 소유권 양도 공시

간접 점유 인도를 통한 소유권 양도

· 점유개정: 양도인이 직접점유 유지, 양수인이 간접점유

· 반환청구권 양도: 제3자가 직접점유 유지, 양수인이 간접점유

(16)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선의취득: 주의했는데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모름 + 소유권 양도→ 소유권 취득

(17)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점유개정 ↛ 선의취득

(18)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선의취득: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

(19)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 선의취득

(20)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선의취득 허용 → 거래 안전 치중 + 소유자 권리 경시

#4. 윗글을 토대로만 생각할 때, 밑줄 친 문장과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면?

선의취득을 허용하지 않는다.

ㄱ. 억울하게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일을 막는다.
ㄴ.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한다.
ㄷ. 거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ㄱ, ㄴ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선의취득

· 양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 양도 조건이 성립하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남(원래 소유자는 소유권 박탈)

· but 고가의 재산이나 점유개정일 때는 선의취득 인정X

Q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물건 사용 ⊂ 직접점유 ⊂ 점유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유효한 계약 + 점유 인도(소유권 양도 공시) → 소유권 양도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가방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 유효한 계약 + 점유 인도 → 소유권 양도

Q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간접점유 = 반환청구권 가진 상태. (물리적 지배X)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간접점유 ⊂ 점유(→공시)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물건의 소유자가 직접점유하고 있으면 (=빌려준 사람이 없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직접점유자만 있고 간접점유자는 없다.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직접점유자가 있어도 간접점유자가 없을 수 있고, 간접점유자가 있다면 그가 소유자일 것이다.(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유효한 계약 + 점유 인도 → 소유권 양도. 점유 = 직접점유 or 간접점유.

Q3.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원래 소유자 권리 경시. 거래 안전 중시.
㉡㉢ = 원래 소유자 권리 중시. 거래 안전 경시.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Q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갑 → 을 : 점유개정(선의취득 불가)
을 → 병 : 반환청구권 양도(선의취득 가능)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을 → 병: 반환청구권 양도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갑 → 을: 점유개정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갑 → 을: 점유개정
(선의취득 불가 → 을 소유권 취득 불가)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을 → 병 : 반환청구권 양도(=간접 점유 인도)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을→병 : 반환청구권 양도(선의취득 가능)